

#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실현 앞장”

전북여성가족재단, 1주년 기념식·포럼 개최... 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공 개최 기원 퍼포먼스도 열려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전정희)은 11일 재단 별관에서 1주년 기념식 및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최병관 행정부지사와 이승식 농림축산환경위원회장을 비롯한 도내 여성·가족 관련 대표,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출범 1주년을 축하했다.

전정희 원장은 “1주년 기념식은 전북여성가족재단이 성평등한 전부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자리”라면서 “모두가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포럼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선영 부연구위원이 ‘저출산과 여성의 고용’을 주제로 한국사회의 고용과 출산의 양자택일 구조에 대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신우리 부연구위원이 ‘전북 일생활균형 실태 및 가족친화인증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저출생·고령화 위기 대응에 대해 발표했다.

발제에 이어 좌장을 맡은 전정희 원장의 주제로 토론자들의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이미선 여성정책팀장은 ‘여성가족정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여성정책연구소 조막대 연구위원은 ‘실태조사로 본 전북 여성 경제활동특성과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또 광주여성가족재단 박주희 연구위원은 ‘광



전북여성가족재단은 11일 재단 별관에서 1주년 기념식 및 포럼을 개최했다.

주광역시 모·부성보호제도 활용 실태 및 정책 현황’을 소개하면서 공공기관보다 직장규모가 작은 민간기업에서 제도사용이 어려운 만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지역차원의 모·부성제도 활성화 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김지수 가족다양성수용 증진본부장은 ‘가족친화기업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 및 현황’을 제시하고, 입실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한인 F&B 정승관 대표는 ‘전북 가족친화 근로환경 구축 우수기업 사례

로서 기업운영 철학을 소개하기도 했다. 다은누리 홍은정 대표는 ‘아이와 엄마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육아휴직제도’가 양육기 아동과 엄마의 성장을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식과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다음 달 열리는 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장은성 기자

## 즉시환급형 사후면세 가맹점 모집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오는 30일까지 즉시환급형 사후면세 가맹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전주 원도심과 한옥마을 일원의 상점으로, 재단 누리집(jct.or.kr) 사업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방문 제출하면 된다.

즉시환급형 사후면세란, 외국인 관광객이 지정된 사후면세 판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 즉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차감해주는 제도다.

앞서 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KIP의 모바일 앱 기반의 간편 택스리펀드 서비스 기술을 활용해 모바일 또는 태블릿 PC로 간단하게 결제할 수 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전주 원도심과 전주한옥마을 점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이를 통해 전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관광 기대에 충족하고, 나아가 전주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사후면세 제도를 기존 1회 50만원 등 총 250만원에서 1회 100만원 등 총 5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관광마케팅팀(063-230-7486)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인문학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한다

전북대 인문학연구소, 무주군과 협력 ‘인문도시 지원사업’ 선정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연구책임 박정민)가 ‘자연특별시 무주, 인문도시로 무주다움을 완성하다’라는 주제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4년 인문도시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호남·제주권에서 선정된 유일한 사업단으로, 역대 가장 인구가 적은 기초지자체라는 불리함을 딛고 이룬 쾌거다.

인문도시 지원사업은 대학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의 인문 자산을 발굴하고, 인문 주간 행사와 각종 인문학 체험, 강좌 등을 통해 인문학을 대중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2027년 8월 31일까지 3년간 수행되며, 전북대 인문학연구소는 국비 4억2천만 원, 무주군 대응자금 7천500만 원을 포함한 총 4억 9천5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에 따르면 인문학연구소는 무주군과 협력해 지역의 특성과 연계한 인문 강좌와 인문학 체험, 길 위의 인문학을 통한 역사 기행 등과 지역문화 관련 토론회, 전시회, 학술대회 등의 인문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

주의 덕유산 등 생태·자연과 반딧불축제 등의 역사·문화자원을 결합해 ‘자연특별시 무주’에 인문학이라는 옷을 입히고, 이를 토대로 무주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계기로 승화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선정은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이래 첫 인문도시 지원사업 선정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역대 가장 인구가 적은 기초지자체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인구소멸의 시대에 인문학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성공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오봉 총장은 “전북대는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선도 모델을 만들기 위해 플래그십대화를 지향하는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무주군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 단위 인문도시 사업의 성공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 인문학연구소는 2021년에는 정읍시와 함께 과제를 수행하며 거점국립대로서 지역사회 인문학 대중화에 힘써왔다.

/장은성 기자



(재)완주문화재단의 완주 장애인합창단 ‘꽃’이 지난 9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열린 제7회 전북 장애인합창제에서 ‘내 손에 바람을 그려요’를 열창하며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완주장애인합창단 ‘꽃’, 최우수상 쾌거

제7회 전북장애인합창제서 창단 1년 만에 수상

(재)완주문화재단(이사장 유희태)의 완주 장애인합창단 ‘꽃’이 지난 9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열린 제7회 전북장애인합창제에서 ‘내 손에 바람을 그려요’를 열창하며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창단 1년 만에 거둔 첫 출전에서의 쾌거로, 합창단의 열정과 노력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합창제는 사단법인 국제장애인문화교류 전북협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관, 전북특별자치도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총 4팀이 참가한 이번행사는 제32회 세계장애인의 날 기념 전국장애인합창대회의 지역 예선을 겸해 더욱 의미가 깊었다.

완주장애인합창단 ‘꽃’은 지난해 9월 창단된 이후, 노래를 좋아하는 장애인과 비장

대인 43명이 함께 어울려 활동하고 있는 완주군 최초의 합창단이다. 매주 합창연습과 다양한 공연활동을 통해 창작자로서의 경험을 쌓으며, 장애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과 화합을 목표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박정자 지휘자는 “우리 합창단의 첫 수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고 기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들어낸 화합의 소리가 이번 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에서 감동을 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완주장애인합창단 ‘꽃’은 오는 11월 전주 평생학습축제와 무장애예술축제의 축하 무대에서 만날 수 있으며, 11월 14일 전국장애인합창대회 본선에 참여할 예정이다.

/원주=염재복 기자

## 정읍시립미술관, 달하미술관서 지역 작가지원 전시

정읍시에서 운영하는 달하미술관(3개소)이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지역 작가지원 전시(3차)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올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은경, 황정옥, 이효근 작가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로 신대인, 연지, 수성 3개소 동시에 진행된다.

달하미술관 신대인에서는 이은경 작가의 ‘가갸호호家戶’ 전시가 진행된다. 작가는 50대 여성의 삶의 회고록을 작품 속에 일기를 쓴듯, 그림으로 형상화 한다. 작가만의 소박한 감성과 담백한 정서가 느껴지는 한국화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달하미술관 연지에서는 황정옥 작가의 ‘산야캘리그래피’ 전시를 만날 수 있다. 캘리그래피는 글자를 아름답게 표현한 예술로, 작가는 우리의 말과 글로 자연과 개인의 아름다운 심상을 캘리그래피 속에 담았다.

달하미술관 수성에서는 이효근 작가의 ‘어제



로 오늘도 꿈을 꾸는다. 내일을’ 전시를 볼 수 있다. 현대 도자 회화에서 흔히 쓰이는 흙을 다양한 재료들과 융합해 전통적 기법의 응용과 현대적 조형성을 강조한 다채로운 도자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11월 15일까지 휴관일 없이 진행되며 신대인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지·수성은 햇빛에 의한 작품 손상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야간에 감상할 수 있다.

/정은=김대환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